

Econ Snapshot

Economy | 2026.6.11



Economist 전규연 kychun@hanafn.com

RA 이태석 taeseoklee@hanafn.com

미국 5월 CPI: 한시름 덜었지만 불편한 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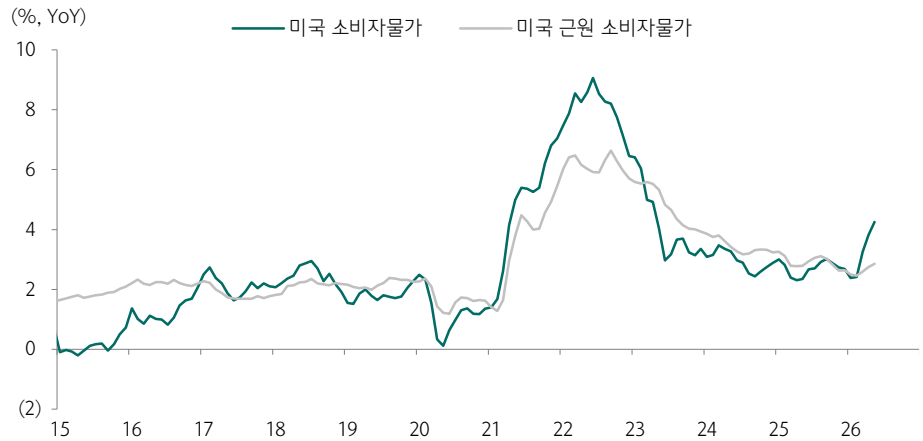
미국 5월 CPI Review: 2차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불편한 수준까지 오른 물가

- 미국 5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.5%, 전년비 4.2%로 예상치에 부합(컨센서스 전월비 0.5%, 전년비 4.2%). 근원 소비자물가(에너지, 식료품 제외)는 전월비 0.2%, 전년비 2.9%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(컨센서스 전월비 0.3%, 전년비 2.9%)
- 여전히 전쟁 발 에너지 비용 증가 영향이 압도적. 에너지 가격이 전월비 3.9% 상승하며 금번 물가 상승의 60% 이상을 차지. 휘발유 가격은 3월 21.2% → 4월 5.4% → 5월 7.0%으로 상승세를 지속
-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2차 효과는 아직까지 항공료(2.7%)와 우편/배달 서비스업(5.2%) 등으로 제한된 상황. 이들 업종은 연료비가 운영비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구조
- 소비자물가 내 가중치가 높은 주거비는 세부 항목인 자가주거비(OER)와 임대료가 모두 올라 전월비 0.3% 상승
- 근원 상품물가는 전월비 -0.1%로 2025년 3월 이후 최저 수준 기록해 관세 발 영향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. 신차(-0.3%) 및 중고차(0.1%)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, 자동차보험은 전월비 -1.7%, 가구 및 가정용품은 전월비 -0.6% 하락

근원 물가의 상승 속도가 완화되며 미 연준은 관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

- 근원 물가의 전월비 상승 속도가 4월 0.4% → 5월 0.2%로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과도한 경계 심리는 일부 완화. 일부 상품물가의 하락 움직임은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영향일 수 있음
- 가계의 소비심리가 저조한 가운데 임금 상승률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 저소득층 위주로 생활비 부담 확대 불가피
- 다만 헤드라인 물가가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,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고유가로 인한 파급 효과가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국면이므로 물가에 대한 연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음
-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새롭게 발표한 60개국 관세(EU, 영국 등 10%, 한, 중, 일 등 12.5%)가 7월 중 발효될 경우, 관세 인상분에 대해 추가적인 물가 압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, AI 수요 확대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도 유효
- 차주 6월 FOMC(6/18)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케빈 워시 연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없어 기자회견에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. 성명서와 점도표는 매파적 의견 우위 예상
- 금번 CPI 발표 이후 금리선물시장은 연내 금리 동결 확률을 종전 31.4% → 32.6%로 소폭 높여 잡은 상황
- 아직까지 에너지 부문과 연료비와 밀접한 업종 위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, 근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만큼 미 연준은 당분간 조기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란 전쟁의 전개 방향을 주시하며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. 하나증권은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을 유지

도표 1. 미국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4.2% 기록



자료: LSEG, 하나증권

도표 2. 미국 소비자물가 세부항목 추이

	2026-05	2026-04	2026-03	전월대비
소비자물가(% YoY)	4.2	3.8	3.3	0.4
근원 소비자물가(% YoY)	2.9	2.8	2.6	0.1
소비자물가(% MoM)	0.5	0.6	0.9	-0.2
근원 소비자물가(% MoM)	0.2	0.4	0.2	-0.2
식료품	0.2	0.5	0.0	-0.3
에너지	3.9	3.8	10.9	0.1
의류	0.3	0.6	1.0	-0.3
신규 자동차	-0.3	-0.2	0.1	-0.1
중고차	0.1	0.0	-0.4	0.1
의료기기	-0.7	-0.4	-1.0	-0.4
주류	0.1	0.3	0.3	-0.2
담배	1.0	0.5	0.1	0.5
주거비	0.3	0.6	0.3	-0.3
의료서비스	0.5	0.0	0.0	0.5
운송	-0.6	0.3	0.6	-0.9

자료: LSEG, 하나증권

도표 3. 미국 소비자물가 전월비 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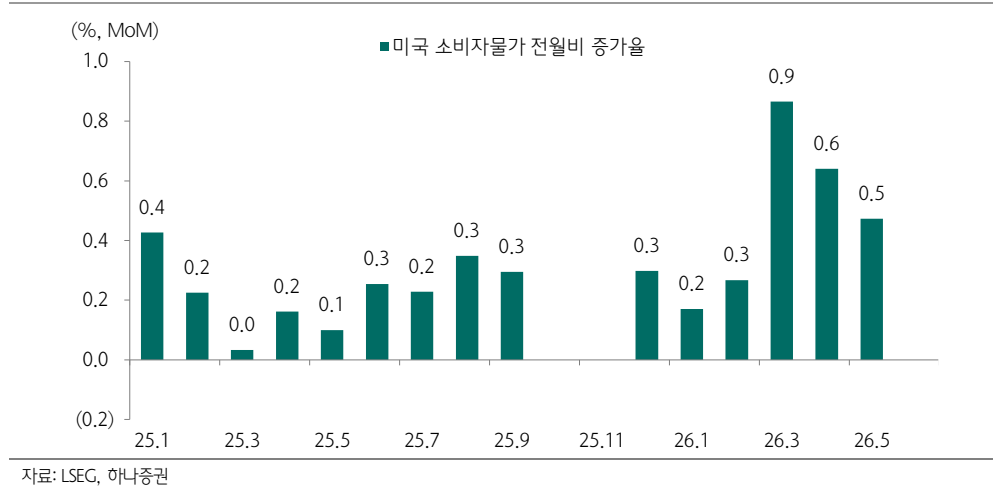


도표 4.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헤드라인 물가 상승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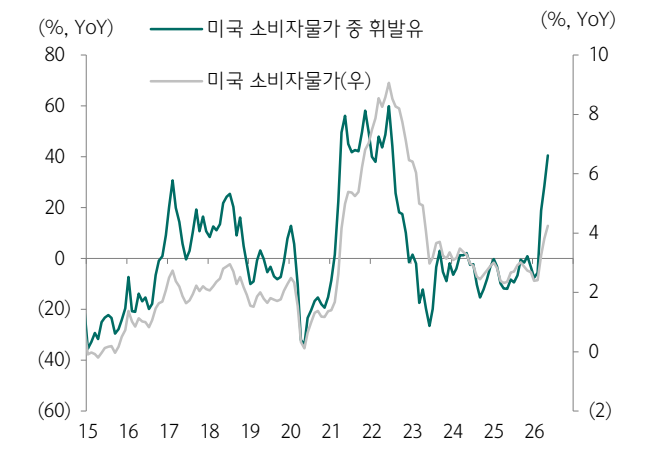


도표 5. 미국 휘발유 리테일 가격은 4월보다 8.3% 상승



도표 6. 주거비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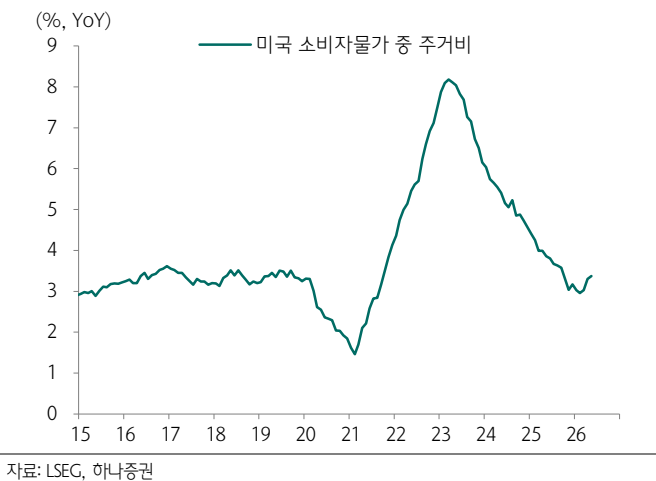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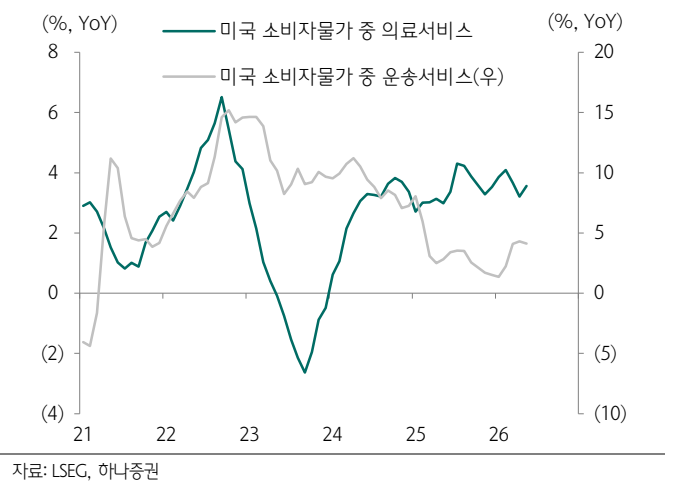


도표 7. 의료서비스 및 운송서비스 가격 추이



Compliance Notice

-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